

수당 올리고 자녀 장학금까지...통장 모시기 안간힘

SOCIETY

2025년 9월 9일 화요일

광주 5개 자치구 정원 2532명 중 29명 결원 고령화·인구 감소 등으로 갈수록 모집 난항

광주 자치구가 '통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기본수당을 인상하고 자녀 장학금 조례까지 개정하는 등 통장 모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일 광주 동구 등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통장 정원 2532명 중 결원은 29명이다. 자치구별로 △동구 6명(정원 207명·현원 201명) △서구 18명(정원 436명·현원 418명) 남구 2명(정원 449명·현원 447

명), 북구 2명(정원 628명·현원 626명), 광산구 1명(정원 812명·현원 798명·폐쇄 13) 등이다.

이중 서구의 경우 공석이 1년 만에 9배나 늘었다. 동구, 남구, 광산구의 경우 해마다 인력 공백이 이어지고 있으며, 북구도 지난해부터 결원이 나오고 있다.

통장은 주민자치의 기초 단위로 △행정사책 홍보 △주민 거주와 이동 상황 파악 등 각종 주민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주민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통장은 주민 추천을 받거나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선출하지만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아파트보다는 단독·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에서 뚜렷하다. 아파트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단체가 없어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야 하는 데다 활동 범위가 넓어 기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 자치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은 지역의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어 수차례 재공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세대명부 조사, 위기가정 발굴,

행정사책 홍보 등 하는 일에 비해 처우가 부족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도 악재 요인이다.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협의회는 통장의 기본수당(월)을 40만원(기존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자녀 장학금(학기당)·명절 상여금(연 2회)·회의수당 지급(월 2회), 상해보험(4만원 상당), 한마음축제·워크숍, 퇴임통장 공로패 등 복지 혜택 확대에 나섰다.

아울러 사기 진작과 통장들이 행정 하부기관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로고 등을 새긴 조끼 형태의 직수 활동복도 지급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자 남구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를 통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완화에 나섰다.

해당 안건이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등에서 원안 통과될 경우 고등학생의 장학금 자격은 전 과목 평균 5등급에서 3등급 이내가 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학년 정원의 상위 60%에서 66%로 확대된다.

자치구 관계자는 "통장은 주민 대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주축"이라면 "복지혜택과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통장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11 | 날씨 19:35
맑음 18:48 | 날씨 07:31



광주	21~29
목포	22~29
여수	23~27
순천	23~28
구례	22~29
광주	22~29
임도	23~29
진남	24~29
고흥	23~29
진도	23~29

목포	밀물(고)	03:08 / 15:24
	썰물(저)	08:22 / 20:35
여수	밀물(고)	09:59 / 22:20
	썰물(저)	03:45 / 15:55

남구 주말 예술축제 '양림수작' 열린다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13~25일 총 4회

광주 남구는 가을을 맞아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에서 시민 참여형 예술축제인 '양림수작(手作)' 주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양림수작 주말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문화축제로, 양림동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오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5일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마다 열린다.

이 기간 양림동을 방문한 탐방객들은 예술공연을 비롯해 공예 체험과 플라마켓, 인생 포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구는 축제 기간 양림동 공예거리 일원에서 스트리트 댄스와 국악 가요, 성악 공연,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 무대를 진행한다.

또 공예품 판매 부스를 마련해 공예 작가의 예술혼이 담긴 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공예거리 입주 공방과 외부 공예 업체 등 20개 업체가 참여한다.

공예품 판매 부스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도자와 금속, 가죽, 비누, 천연 염색, 섬유 등 다양한 공예품을 관람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공예 작가 20여명은 시민들에게 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예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체험비는 재료비를 포함해 1~2만원 수준이다. 각 부스에서는 현장에서 체험 결과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10명에게 무료 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남구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전남 영광군과 장흥군, 원도군, 전북 임실군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도 만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양림동 공예거리의 문화적 자원과 다양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면서 "양림동 탐방객과 공예 작가들이 유익하고 즐거운 소통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가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8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우산을 쓴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북구의원 신속 수사 촉구에도 지역사회 반응 '싸늘'

온누리상품권 유용 정황...의원들 "적법하게 이뤄져" 시민사회 "손가락질 받아 마땅...경찰, 엄정 수사"

공무국의출장 시 여행사 대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해 할인 차액금을 유용하려 했던 광주 북구의원들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사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8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일본 도쿄로 공무국의 출장을 다녀온 구의원 12명이 이날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공무국의출장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공적 자금을 아끼고 지방재정을 살리려고 했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례가 없던 일여서 행정안전부 질의 등 관련 절차에 시일이 소요된 것 일 뿐"이라며 "내사 중인 북부경찰서는 지체하지 말고 저희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들이 경찰 수사를 촉구했지만 지역사회 반응은 냉담하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우리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물의를 일으킨 게 문제다"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우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북구의원 일부 의원들의 이번 행위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편법"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해외연수, 할인 차액금 기부는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일 뿐이다"고 전했다.

이어 "연수가 정당했다면 연수의 의미를 그대로 보고하는 게 필요했다"며 "국민의 혈세에기에 즉시 반납하는 게 옳은 일이었으며 애당초 이런 논란을 만들지

않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들은 정액으로 받은 출장비 4400여만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여행사 대금으로 결제한 뒤 할인받은 10% 차액금을 즉시 반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해 발생한 할인 차액이 공적 예산에서 발생한 이익임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활용(기부)하려다 출장을 다녀온 지 2개월이 지나서야 반납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업무에 비취할 때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욕 당사자인 공무국의출장 연수단에 참여한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연수단 대표의원 정재성의원을 비롯해 최무송·임종국·한양임·고영임·이숙희·김영순·강성훈·김건안·김형수·정달성·황예원 의원 등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가스총 차고 병원 활발한 60대

만년필...전남 목포의 한 종합병원에서 가스총을 소지한 상태로 배회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은 8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56분 가스총을 소지한 상태로 목포시의 한 종합병원 1층 원무과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아.

한 시민은 A씨 허리에 총기가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가스총을 지닌 채 지인의 병원비 수납을 도와주러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

A씨는 가스총을 꺼내거나 누군가를 겨누는 등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신 목적으로 총을 가지고 나왔다"고 해명. 경찰은 A씨의 가스총을 압수, 추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

목포·성명준 기자 tjdaudwns@

50대女 폭행 살해하고 시신 방치한 일당 체포

'돈 400만원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수개월 간 방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은 8일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50대 A·B씨와 5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 오전 4시께 목포의 한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50대 여성 D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B씨는 "D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D씨를 차량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심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D씨가 숨지지 수일간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유기 정소를 모색한 것

으로 드러났다.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한 이들은 시신을 밀봉해 차량 뒷자리에 숨겨두고 무안군 청계면 한 마을 공터에 방치했다.

3개월간 방치된 차량과 시신은 일당 중 1명이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일 무안군 마을 공터에서 부패한 D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추적으로 나선 경찰은 6일 오후 10시10분 마을 주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렌트카를 타고 달아난 B씨와 C씨도 7일 오전 목포시 상동 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체포됐다.

C씨는 지인인 D씨에게 약 400만원의 채무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무안·성명준 기자

"2025 광주 직업교육 박람회서 꿈 탐색"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는 '2025 광주 직업교육박람회'가 오는 11~12일 광주여자대학교 시립유니버시티드체육관에서 중·고등학생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시교육청 주최,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광주경영자총협회 후원으로 마련된 광주지역 최대 규모 직업교육 행사다.

올해는 '먼저 만나는 꿈, 꿈을 이루는

열쇠'를 주제로, 직업계고 진학을 꿈꾸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부스 운영, 명사 특강 등을 진행한다.

특히 13개 직업계고 고등학교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정과 전공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보다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스마트 드론, 영상촬영 등 전문

11~12일 광주여대 체육관...중·고생 5000명 참여
13개 직업계고 체험부스 운영...진로·진학 컨설팅

분야부터 미니화분 만들기, 골프 퍼팅 체험, 철도 기관차 체험, 글자기 시물레이션 체험, 냄비 받침 만들기 등 학생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새롭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민연금공단 등 16개 공공기관,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유관기관 10개, 코비코㈜ 등 15개 지역 기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기관 홍보, NCS특강, 직업 정보 제공은 물론, 진

로·진학 컨설팅, 현장 채용 등을 진행한다.

이 밖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전사 등 군 관련 모병 홍보 부스, '생각을 선물하는 남자' 저자 김태원 작가의 특강, e-스포츠 경기, 동아리 발표, 북면가양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박람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람 희망 학생이 20명 이

상인 경우 왕복 버스를 지원한다.

백인화 직업계고교장단협의회장(광주자연과학고 교장)은 "이번 박람회가 중학생들에게 직업계고 진학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재학생은 다양한 체험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직업박람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탐색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